

‘취임 3주년’ 김성장 흥군수, 공공시설 유치 성과 빛났다

장흥호국원·전남도기록원 등 차례 유치
212건 사업·7천151억 국·도비 확보
“군민과 함께 위대한 역사·新미래 열 것”

김성장 흥군수가 취임 3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민선 8기 최대 성과로 대형 국책사업과 공공시설 유치를 꼽았다.

25일 장흥군에 따르면 전날 대회의식에서 민선 8기 3주년을 앞두고 ‘지역 언론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 언론인, 군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유치와 농수산업 육성, 청년 지원을 통한 성과가 공유됐다.

간담회는 분야별 성과 발표와 군정 중점방향 설명, 현안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졌다.

장흥군은 민선 8기 3주년 동안 대형 국책사업과 공공시설 유치를 최대 성과로 꼽으며, 이를 상향식 모델의 ‘장흥형 혁신도시’ 추진 성과라고 밝혔다.

기존의 혁신도시가 중앙정부 주도로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하향식 방식이라면, 장흥은 창의적 접근을 통해 대규모 국책기관 유치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장흥군은 민선 8기 동안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 국립 장흥호국원, 전남 국민안전체험관, 천관산등산학교, 전남도기록원 등을 차례로 유치했다.

그린바이오분야에서도 호남권역 산림바이오 가공단지,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 사업 등을 선점하며 지역 미래 산업 육성에도 한 발 앞서가고 있다.

장흥군은 지속적인 국책·공공시설 유치를 통해 생활인구 100만명 증가, 정부의 제2차 지방 공공기관 이전 등에 대해 전략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국·도비와 대형 SOC 사업 확보 부문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민선 8기 들어 정부와 국회 등에 체계적인 예산 확보 활동과 펼친 결과 현재까지 212건, 총사업비 기준 7천151억원 규모의 국·도비 공모사업



김성장 흥군수가 지난 24일 장흥군청 회의실에서 민선 8기 3주년을 앞두고 ‘언론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장흥군 제공〉

을 유치했다.

이 같은 성과는 전남도 내 최다, 장흥군 역사상 최대의 실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성과 발표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앞으

로의 군정 운영방향 설명과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김성장 흥군수는 사계절 축제 도입방안에 대한 질문에 “장흥에는 여름 물축제, 가을 통합의학박

람회, 겨울 해맞이행사 등의 축제가 있지만, 봄 축제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며 “봄철 노벨문학 축제를 구상해 사계절 관광객들의 방문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청년 인구 확보 대책에 대해서는 기본소득 보장과 공공기관 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민 소득 향상에 대한 질의에서는 친환경 인증 비율을 높이고 지역 전략작물 육성, 농수산물 수출확대, 장흥한우 명품화 추진 등을 구체적인 전략을 꼽았다.

이 밖에도 김 군수는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소상공인 육성, 지방소멸 대응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생활 개선을 위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김성장 흥군수는 “국책사업과 공모사업을 통해 유치한 군의 신성장산업들은 주민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군민과 함께 장흥의 위대한 역사, 새로운 미래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장흥=노형록 기자〉

보성 율포솔밭해수욕장 내달 12일 개장



8월 24일까지 운영…해양레저 ‘다채’

보성군은 25일 “오는 7월 12일부터 8월 24일까지 총 44일간 ‘율포솔밭해수욕장’(사진)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성군은 율포솔밭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편의·안전시설에 대한 정비를 마무리하고, 관광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율포솔밭해수욕장’은 길이 약 1km의 은빛 모래사장과 50~60년생 해송 군락이 어우러진 경관으로 유명하다.

특히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흥토길과 낭만 가득한 산책로 등 자연 친화적인 요소가 조화를 이루며 매년 수많은 피서객의 발길을 끌고 있다.

해양레저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운영된다. 바나나보트, 수상스키 등 스릴 넘치는 레저 활동은 물론,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청정 갯벌 체험, 거리공연(버스킹)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마련된다.

‘율포솔밭해수욕장’ 인근에는 ▲지하 120m에서 끌어올린 암반해수와 보성녹자를 접목한 ‘율포해수녹자센터’ ▲신선한 수산물을 만날 수 있는 ‘회천수산물위판장’ ▲가족 단위 체험

객에게 인기 있는 ‘보성비봉공룡공원’, ‘바다낚시공원’ 등의 시설이 있다.

또한 보성의 대표 관광지인 ▲대한민국 차밭 ▲부제 ▲한국차박물관 등과도 인접해 있어 연계 관광지로서의 매력도 충분하다.

보성군 관계자는 “율포솔밭해수욕장은 입장료와 주차비 부담 없이 찾을 수 있으며 해양레저, 솔밭 산책, 자연 체험이 어우러진 청정 힐링 명소”라며 “철저한 안전 관리와 방역, 편의시설 점검을 통해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여름 관광지로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보성=임병언 기자〉



GS칼텍스, ‘희망에너지교실’ 아동 예술교육 운영

앰비규어스 댄스컴퍼니와 협업
여수지역 아동 특별 프로그램

GS칼텍스는 “최근 여수시 GS칼텍스 예술마루에서 ‘2025년 GS칼텍스 희망에너지교실 발대식’을 개최하고, 여수 지역 아동들을 위한 특별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의 본격적인 운영을 알렸다”고 25일 밝혔다.

발대식에는 윤경희 여수시 여성가족과장, 배수봉 여수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김보람 앰비규어스 댄스컴퍼니 예술감독, 김종은 GS칼텍스 대외협력팀 상무, 박필규 GS칼텍스 예술마루 관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사업 성과 공유 및 올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무용단 앰비규

어스 댄스컴퍼니와 협업해 ‘앰비규어스와 함께하는 몸에서 춤으로!’라는 창의적 신체 표현 예술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프로그램은 7월 16일부터 8월 8일까지 약 한 달 간 진행되며, 지역아동센터 7곳에서 선발된 50명의 아동이 참여한다.

배수봉 여수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장은 “GS칼텍스 희망에너지교실은 10년 간 지역 아동들의 꿈과 성장을 돋는 소중한 프로그램”이라며 “저소득층 아동들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GS칼텍스 관계자는 “오는 8월 9일 예술마루 소극장에서 발표회를 열고, 아동들이 직접 창작에 참여한 공연을 통해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곡성, 청렴도 끌어올리기 ‘총력’

부서별 청렴도 향상 방안 논의

곡성군이 청렴도 향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5일 곡성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군청 소통마루에서 ‘2025년 제1회 청렴도 향상 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2025년 연간 반부패·청렴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부서별 청렴도 향상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상래 군수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부군수를 포함한 간부 공무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 내용을 공유하고, 부파 취약 분야의 원인을 진단하며 개선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앞으로 곡성군은 부서별 특성에 맞는 청렴 시책을 발굴해 2,3차 보고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전년도 평가에서 외부 체감도 부문 소극 행정과 부과 경협 빈도, 내부 체감도 특혜 제공 등에서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전 공직자의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오는 30일 ‘곡성군 청렴골든벨’을 개최하고, 12월에는 청렴 활동에 적극 참여한 부서에 우수 부서 표상을 통해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청렴 시책 추진 상황을 서로 점검해 ‘부파 ZERO, 청렴 곡성’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곡성=김영필 기자〉

구례군, 여성친화도시 조성 간담회

성평등 문화 확산 의견 청취

과 정책 제안 등에 대해 토론하며, 지역의 변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김순호 군수는 “군민의 생생한 목소리가 지역을 더 안전하고 평등한 공간으로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참여단과 함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구례를 만들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례군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은 역량강화교육, 간담회 및 현장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일상생활 속 성별 불균형 요소 및 생활불편 사항 등을 발굴해 민·관의 소통창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구례=임종길 기자〉

이탈리아 국제슬로시티연맹, 담양 방문

죽녹원·삼지내 마을서 슬로시티 체험

담양군은 25일 “지난 23일 이탈리아 국제슬로시티연맹(Cittaslow International) 관계자들이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 인증 지역인 담양군을 공식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슬로시티 간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담양군의 지속가능한 슬로로관광 정책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담양군은 2007년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 지정된 이후 지역 통행과 문화를 바탕으로 현대 문명과 조화를 이루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그 결과 2019년에는 군 전역이 국제 인증을 받았고, 현재까지 네 차례 재인증을 받으며 세계적인 슬로시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제슬로시티연맹 사무국 관계자와 대표 등 7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담양군청을 방문해 정철원 담양군수와 담양의 슬로시티 철학과 운영 사례에 대한 의견을 나눴으며,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서 담양이 지난 상징성과 그간의 노력에 대한 높은 관심이 이어졌다.

방문단은 이후 담양을 대표하는 자연경관 이자 슬로시티 정신을 담고 있는 죽녹원, 통영과 삶의 지혜가 살아 숨 쉬는 창평 삼지내 마을을 방문해 담양 슬로시티의 매력을 직접 체험했다.

정철원 군수는 “이번 방문이 세계적인 슬로관광 거점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슬로관광 거점도시로서 국제 네트워크와의 연대를 강화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낮과 밤이 빛나는”…광양 해비치로 경관조명 설치

백운산·섬진강권 관광클러스터 구축

광양시가 ‘해비치로 삼화섬 관광명소화사업’의 일환으로 삼화섬과 달빛해변 일대에 경관조명 설치를 완료해 낮과 밤이 빛나는 광양 애경으로 방문객들의 발길을 유혹하고 있다.

25일 광양시에 따르면 해비치로의 핵심 친수 공간인 삼화섬을 중심으로 달빛해변 일원에 무빙라이트, 미디어아트, 매화나루 조명, 캐릭터 조형물 ‘매돌이’ 조명 등 경관조명을 설치했다.



이로써 금호동과 삼화섬을 잇는 무지개다리, 삼화섬과 증마동을 연결하는 해오름육교와 함께 달빛해변 일대를 아우르는 환상적인 빛의 파노라마가 완성됐다.

광양시는 달빛해변 잔여 구간에 대한 사업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이 일대를 바다를 조망하며 산책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

〈광양=양홍렬 기자〉